

APEC 주간, 삼성·LG 등 ‘K-Tech 쇼케이스’ 한자리에

첨단산업 협력·투자 유치 총력전

산업부, 글로벌 CEO 투자 유치 AI·모빌리티 협력 프로젝트 추진 국내외 기업 4000곳 수출상담 박차 삼성·LG 등 기술 시연 경쟁력 홍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주간인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경제인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경주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글로벌 CEO와 국내 주요 그룹 총수급 등 1700여 명이 참여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협력 강화, 통상외교 실질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APEC CEO Summit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칸 구글 부사장, 앤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AI·디지털 산업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크리스토퍼 르베스크 테라파워 CEO, 케빈 켈러거 산토스 CEO, 삼사이리 이브라힘 페트로나스 부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CNO, 장윙 팔라예 오라노 USA CEO 등 원전·LNG 기업 경영진이 참여한다.

글로벌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제인 프라이저 씨티그룹 CEO,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운영총괄이사, 아자이 판데이 AIIB 부총재, 이사벨 채터튼 ADB 국장 등 주요 국제금융 관계자가 참석해 민관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에서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조석 HD현대 부회장, 주형욱 SK이노베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예술의 전당(CEO Summit)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소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션 사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CSO, 이흥락 LG AI연구원 공동대표, 오경수 두나무 CEO, 로버트 포터 쿠팡 부사장 등 주요 기업 총수급이 글로벌 CEO와 직접 교류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7~30일 경주 예술의전당과 엑스포 공원에서는 ‘퓨처테크 포럼’이 열린다. AI, 조선, 방산, 가상화폐, 미래에너지, 리테일이코노미 등 6대 첨단 분야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직접 세션을 진행하며 산업 현장과 글로벌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SK그룹은 ‘오픈소스 AI를 통한 글로벌 생태계 구축’과 ‘지역 혁신 허브로서 AI’ 발표를, HD현대는 ‘자율운행·AI·원자력 기반 미래 선박 기술’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AI 기반 방산 기술’과 ‘지속가능한 평화’ 방안을 소개한다.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신뢰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은 ‘탄소중립과 회복탄력적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28~31일 열리는 ‘K-Tech 쇼케이

스’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이 참여한다. 삼성은 차세대 갤럭시 Z 트라이폴드와 고급 디스플레이 기술을, LG는 투명 OLED 기반 미디어아트를, 현대차는 자율주행·로보틱스·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공개하며 산업과 기술력을 직접 선보인다.

서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서는 300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이 신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부산·대구 ‘수출 붐업 코리아 Week’에서는 70개국 1700여 해외 바이어와 국내 4000개 기업이 1만 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APEC 주간 중 주요국 각료와의 양자회담에 배석하고, 글로벌 CEO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신규 투자 유치와 협력 성과 창출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AI와 에너지 등 핵심 산업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에 모이는 만큼, 첨단산업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0월 수출, 주요 지역 모두 ‘마이너스’

여한구 본부장, 수출동향 점검회의

10월 들어 20일까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역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시장별 수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관계 기관도 참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월 1~20일 기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은 42억 달러(-25%), EU 25억 달러(-20%), 중국 66억 달러(-9%), 아세안 53억 달러(-12%)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줄었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22일에서 올해 20일로 줄어든 것이 감소세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미국은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주요 품목이 관세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됐고, EU는 생산·소비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제한적이다.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이 수출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산업부 소속 수출지역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긍정적이지만 미·중 관세 협상 등 통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아세안은 제조업 생산 둔화 추세지만,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호실적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선도국가들의 산업·통상정책이 우리 수출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하는 지금, ‘보는 속도’와 ‘움직이는 속도’ 모두를 높여야하는 시점”이라며 “지역별 담당관들은 수출기업 및 연구·지원기관과 원팀으로 현장·분석·대응을 하나로 묶는 조기경보·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고 빈틈없는 핀셋 지원을 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전략작물직불 예산 대폭 확대”

농식품부, 쌀 구조개선 본격화

정부가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구조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충북 청주 오창의 청원생명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급 조절용 벼를 포함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단기적 수급 대응을 넘어 쌀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전략작물 생산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현장에서는 콤바인 수확 작업에 직접 참여한 뒤 농업인들과 올해 작황 및 쌀 값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업인들은 최근 쌀값이 회복돼 올해 수매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 수확기 대책으

로 예상 과잉물량 16.5만 톤 중 10만 톤을 격리하고, 내년 2월 전에 수급을 다시 전망해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수확기에는 농업인들이 ‘풍년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예상치 못한 개시무늬병 확산으로 피해가 커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신속한 조사 후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가 희망 시 피해 벼를 정부가 전량매입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문한 청원생명농협쌀공동사업법인은 도정 및 쌀 판매만을 하는 다른 미국종합처리장들과 달리 쌀 스킨, 떡류 등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친환경·유통·수급’ 혁신으로 농업 재편

온라인 유통 확대·AI 도축로봇 도입 지속가능 농업생태계 구축 본격화

농협중앙회가 안정적인 영농환경 마련 및 농업인 경영지원 강화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23일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소비 트렌드 변화 속에서 우리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생산 확대·온라인 유통체계 개편·수급안정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농업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은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정정 생산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친환경 농산물 취급액을 올해 5809억원에서 내년 6315억원으로 약 8.7% 확대한다. 아울러 농축협 간 협약 체결을 통해 퇴·액비 자원화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교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진은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를 방문한 어린이가 가축 먹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순환형 저탄소 축산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비축기지(30개소) 운영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 농협은 스마트 유통을 통해 농축산물 가치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협형 생생배송’이나 ‘바로바로팜’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배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농축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올해 834억 원 규모였던 온라인도매 시장 취급액은 내년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공판장 확대와 전용상품 개발, 산지 농가의 온라인 진출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이 운영하는 축산물공판장에 인공지능(AI) 도축로봇과 스마트 경매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농협은 수급안정 기반 강화로 농가소득을 지키고 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시스템을 고도화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와 참여농협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의 가격안정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쌀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과 재배면적 조정도 추진 중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이 신뢰하는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